

전남정치 1번지...민주-민평당 '호남 적통' 사수 빅매치

목포시장

전남 정치 1번지인 목포 시장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1당 독주가 아닌 양당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보여 각 후보의 조직력에 따라 선거판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호남적 통 자리 사수를 위한 빅매치가 예상된다.

목포시장 후보군으로는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에 도전하는 박홍률 시장이 민평당 후보로 전략공천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선 김종식 전 광주 경제부시장, 최기동 목포시의원, 조요한 목포시의원, 김대준 목포발전연구원 공동대표 등 4명의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밀고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 정의당에선 박명기 목포시위원장이 출사표를 냈다.

특히 목포는 국민의당에서 탈당한 민평당 박지원 전 대표의 지역구여서 관심이 많다. 민평당 행을 택한 박 시장이 재선의지를 밝힌 가운데 다수의 전남도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민평당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관광도시, 수산도시, 강소도시 목포'의 초석을 다진 자신의 치적과 현



박홍률 시장



김대준 대표



김종식 전 부시장



조요한 시의원



최기동 시의원



박명기 위원장

재선 도전 박홍률 현 시장 민평당 후보 전략공천 사실상 확정

민주당 김종식·최기동·조요한·김대준·정의당 박명기 출사표

직 프리미엄을 내세워 재선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에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한 번도 무소속 후보에게 시장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목포에서 이변을 일으킨 점이 자리한다. 박지원 전 대표가 견제하자는 것도 박 시장 입장에서 든든한 우군이다.

민주당에는 다양한 입자들이 나왔다.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선거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목포로 내려와 경제통이라는 점을 적극 알리면서 발 빠른 행보로 인지도를 올리기에 치중하고 있다. 지난 달 국내 석학들과 유명 교수진들로 구성된

'목포권 정책연구소'를 발족시켜 주목을 받은 김 전 부시장은 목포 부시장을 역임하고 안도군수 3선을 지낸 베테랑 지방행정가로 꼽힌다.

최기동 목포시의원은 목포 토박이로 목포시에 애착이 많다. 매일 새벽 민생투어를 펼쳐 지역사회에선 '생활정치의 달인'으로 통한다. 4선 시의원으로 제6대 전·후반기 의장을 지낸 최 의원은 선거 때마다 시장 후보로 부상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차세대 지역 정치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3선의 조요한 목포시의원도 민주당 주요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목포시의

회 도시건설위원장이던 조 시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전남도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대준 목포발전연구원 공동대표도 최근 지방재정감시연대를 출범시키며 목포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대표는 재정전문가로 목포경제를 살릴 전문가를 자임하며 물밑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의당에선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 위원장은 '목포를 보건의료 중심도시와 경쟁력 있는 해양 도시,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메카로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

이외에도 권옥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김삼열 전 목포지방행정심판위원장도 출마설이 나온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현역 프리미엄이나 민주당 대세론이나

현시장-민주당 후보 기싸움

학연·지연 싸움 우려도

지역정가에선 이번 목포시장 선거는 '현역 프리미엄 대 민주당 대세론'의 싸움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현 시장과 민주당 후보 간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이 SNS상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조기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호남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목포 선거에서만은 민주평화당이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민주평화당에 호남 터줏대감으로 군림해온 박지원 의원이 버티고 있어서다. 지역 맹주인 박 의원의 파급력과 민주당 대세론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여기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과 대세론을 얹고 민주당 후보가 난립, 민주당 후보 경선 후유증이 불거질 경우 민주당 지지층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시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뤄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광역·기초의원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 중량감 있는 후보가 많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민주당으로서 부담이다.

특히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시장 선거가 학연·지연 싸움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후보들의 고향인 진도와 완도, 그리고 목포 지역 고등학교의 쌍두마차로 꼽히는 목포고와 문태고의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 벌써부터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해양관광도시...현 시장 재선 가도 민주 후보 거센 도전

여수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59) 시장의 재선에 맞서 민주당 후보군의 도전이 거세다.

주 시장은 지난 대선 당시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민주당에 남아 '당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호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현 정부와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진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공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열되면서 향후 사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른 정치적 희비도 엿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에 맞선 민주당 내 후보로는 권오봉(59)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권세도(60) 조선훈 법대 초빙교수, 김유화(54) 여수시의원, 김순빈(67) 시의원 등이다.

주 시장은 3년 연속 '1300만 관광도시'를 달성해 여수를 명실상부한 남해안 최고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킨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는 권오봉 전 청장은 정통관료(행시 26회) 출신이다.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과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을 지내며



주철현 시장



권세도 교수



권오봉 전 청장



김순빈 전 부의장



김유화 시의원



심정우 교수

민주당 주철현·권오봉·권세도·김유화·김순빈

민평당 김영규·한국당 심정우·무소속 이노철 도전

중앙·지방 행정에 정통한 호남출신 대표 예산전문가라는 평가받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청장 재임시 여수화양지구 부동산투자 이민지역 지정, 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 등 지역의 현안을 풀어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권세도 교수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석·홍보담당관,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두루 역임한 정통 경찰 간부 출신으로, 최근 여수와 총동문회장에 취임하는 등 지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수MBC 아나운서 출신 유일한 여성

후보인 재선의 김유화 시의원은 전남 최초 여성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당내 차지단체장 여성 전략공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 부위원장과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지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중평화당에서는 4선 시의원인 김영규(61) 전 여수시의회 의장이 나선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온 명실상부한 지역도박이로 꼽힌다. 지난 2012년 세계 박람회 성공개최에 기여하면서 지역민과



김영규 전 의장



이노철 전 국장

의 꾸준한 소통과 함께 신도심과 구도심에서 고른 지지를 안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와 함께 심정우 조선훈 초빙교수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세 번째 도전에 나섰으며, 앞서 국민의당에 입당했던 이노철 전 여수시 안전행정국장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ju.co.kr

삼려통합 이후 재선시장 한번도 안나와

옛 여수-여천 민심 정치공방

여수와 출신 동문 표심 주목

여수는 지난 1987년 삼려통합(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을 이루고도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재선 시장이 단 한번도 배출되지 않았다는 지역 특징을 갖고 있다.

행정 통합 성과와 달리 지역 민심은 옛 여수(갑 지역)와 여천(을 지역)지역으로 나뉘어져 선거 때마다 정치공방이 계속돼 왔고, 재선에 나선 민선 시장들도 크고 작은 비리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지금까지 단 한사람도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와 출신 동문의 표심 향배도 주목된다. 민주당 후보인 주철현 시장과 권오봉 전 청장, 권세도 초빙교수 등이 모두 여수와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입후보자들이 지역주요 현

안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과 관광내실화,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30만 회복 등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규 전 의장이 출마의사를 밝힌 민평당도 만만치 않은 뒷심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수지역 현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주승용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이웅주 의원은 민평당에 각각 합류하면서 옛 국민의당이 가진 기존 조직력이 반으로 나누어진 상태여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던 무분별한 정치공방과 편 가르기가 아닌, 정책 평가 등 깨끗한 선거로 진정한 지역발전과 통합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이사업역 | 전남대 지질학과 졸업,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